



주민과 함께하는 環境行政 떠날다

■ 편집부

* 朴鍾建청장 *

'40년 서울 출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前, 환경청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 광주환경지청 계획과장
 ◦ 광주환경지청장
환경처 폐기물관리국장
現, 환경처 부산지방환경청장

일시 : 1991년 1월 17일

장소 : 부산지방환경청 청장실

참석 : 박종건 <부산지방환경청장>

김효실 <부산협의회 회장>

김중수 < " 수석부회장>

김태병 < " " >

남학회 < " 총무>

하중호 <경남협의회 회장>

문종욱 < " 수석부회장>

강병길 <울산·울주협의회 회장>

김효실회장 :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본 회보가 특집으로 마련한 6개 지방환경청장님과의 특별좌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선 이 시간을 할애해주신 박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지방환경청의 '91년도 환경정책 및 지도단속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는것으로부터 이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박종건청장 : 부산을 비롯, 경남, 울산·울주지역 회장단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청의 정책방향을 얘기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산·경남지역 8개 소관역별 환경보전계획을 전국 환경보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할 환경관리계획을 우리청 계획과 연계·총괄 해나가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또 한가지로는 각계각층에 팽배해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오해, 불신을 일소시켜 지역주민과 환경관련 각종 단체들이 환경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경남환경소식지를 월1회 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사실 발간사에서도 밝혔지만 상당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환경현황에 터무니 없는 오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와 함께 1년에 2~3번 정도 정례적으로 환경보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김회장도 참가하셨지만, 지난해 11월의 토론회엔 반공해단체도 참가시켜 우리가 듣지 못했던 곳으로부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와같이 환경소식지 발행, 환경보전토론회 개최를 통해 올바른 환경정보의 보급에 힘쓰며,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도점검방향에 대해 말하자면, 단속이 됐으며 누가보더라도 나아졌다고 하는, 다시말해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종욱부회장 :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개선효과'를 거두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위해선 울산, 울주 지역과 같은 오염우심지역내의 배출업소와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중점 단속할 것이고, 대기이동 점검차량을 이용해 오염도변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처 중앙환경기술지원단 및 지방청 기술지원반 편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할 것이고요.

하중호회장 : 순수한 민간단체로 지난 '86년에 결성된 본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14개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미나, 캠페인 등 분주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청장님께서 그간 저희 활동사항을 보시고 느끼신점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건청장 : 발족 당시에 비해 괄목할 만한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나날이 법령이 강화되고 사업주들의 투자의식이 미약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선 창구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러한 활동이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환경보전의 첨병인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지역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 환경보전이라는 대목표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병길회장 :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영남지역 역시 기업내에 환경전담부서 설치가 안돼 있는 업체가 많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이 약한 곳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박종건청장 : 관리인들의 사기진작과 권익옹호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전담부서 설치는 '87년부터 활성화되기시작해 '90년 12월 현재 관할 배출업소중 137개 업소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종이상 배출업소를 기준으로 할때엔 97개 업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독려도하고 지침도 펴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설치업소가 미흡한 실정이고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도 어떤면에선 기업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게 사실이죠. 우리청에서는 업체의 대표자



◀ 김효실회장

간담회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전담부서의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니 여러분도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신념을 갖고 임해야 할 줄 압니다.

김중수부회장 : 방금 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같은 입사동기에 비해 진급 수준도 처지고 이에따라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낮습니다.

기업내에서야 돈 버는 사람이 좋지, 쓰는 사람이 좋을리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우도 제대로 못받는데다 환경관련법상에도 양벌규정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벌규정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종건청장 : 사실 어떠한 환경문제로 배출업소를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항상 배출업소 대표자나 법인을 고발하고 있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관리인도 처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법을 운영하는 관계기관과 협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처벌이 목적하는 바에따라 가능한 관리인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협조해 나갈 것 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환경관련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부에 개선요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 근무하는 부서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강병길회장 : 물론 방지시설 운영일지 및 개선요구서등을 통해 회사측에 요구할 사항은 알리고, 자긍심을 갖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특히 지난해에는 시·도 및 환경청등 지도단속기관들의 반복되는 점검이 많아 곤욕을 치루기도 했는데요.....

박종건청장 : 지방청이나 시·도의 지도점검관 할업소가 각기 구분돼 있으나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병행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엔 그런 경우도 발생했지요.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령에따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구분되므로 이로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하중호회장



◀ 강병길회장

제 생각으로 합동점검이 부득이 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관할구역내에서는 시·도도 관심사항이 있고, 지방청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하고 지방지검에서도 공해단속에 대한 중심시책을 펼치기 때문에 중점단속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김태병부회장 : 개정된 환경법규에 따라 종래의 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의 이원화로 빚어졌던 문제점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 이 문제의 향후 추세는 어떠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박종건청장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일원화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각 기관에서도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구분될 것입니다.

김종수부회장 : 지방청, 시·도, 검찰청등의 기관이 지도단속시 폐수를 채취해가면 웬만한 업체들은 다른 자가측정업소나 연구소로 동시에 샘플을 채취, 조사를 해봅니다만, 측정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도 한번의 검사로 불이익을 당한 예가 많은데요, 가령 기준치에서 10%초과했을때는 2-3번 재검사하고 개선명령이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40%초과시는 즉시 조치한다는등 기준을 설정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점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요? 또한 측정치가 상이하게 나올 경우엔 검사자 한 사람이 재차 반복하는것보다 제3자가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박종건청장 :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상이한 평가가 있을 수 없으나, 종전같이 지도단속권과 행정처분권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업소의 제반사항을 잘 모르는 기관이 단속을 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할 때에만 상이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측정자에 따라 오차가 날 수 있지만 공권력이라는 하나의 대외 공신력은 측정분석과에서 측정한 것이 인정받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참고치에 불과합니다.

측정분석과의 측정치는 오랜 경험의 전문인력, 좋은 시료등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우리청에서는



▲ 박종건청장

**환경소식지발행,
환경보전토론회 개최등을 통한
올바른 환경정보의 보급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자발적으로 환경정책에
참여케할 계획입니다.**

기준치를 조금 초과하는것에 대해서는 두세번 반복체크하고 측정노트를 재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이한 평가에 대해서는 본처에 질의해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사람이 재차 체크해 보는 것보다 제3자가 한번 검사 보는 것이 어떠한의 의견도 설득력있다고 봅니다.

하중호회장 : 말씀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관리인입회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인들의 자격정수에 대한 확인도 강화했으면 하고요.

박종건청장 :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시엔 관리인입회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 점검이나 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엔 타 직원 입회하여 지도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선 2종이상 사업장에 대해 하루 17시간이상 조업시는 관리인을 복수로 채용(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도점검시는 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병부회장 : 청장님께선 본처에서 폐기물관리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특히 폐기물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 현재 부산지역엔 매립지도 부족하고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연안지역에 매립장을 조성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부산연안지역에 혹은, 공유수면이나 간척지를 개발해 자가매립장을 갖추려 해도 법에서 규제받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간에 어떤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건청장 : 앞으로 일반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책임관리하게 되니까 시·도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매립이나 소각시설에 신경을 쓸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고 그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일관성도 확보되고 적정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의 매립지가 워낙 부



◀ 김중수부회장



김태병부회장▶

족한 것은 우선은 이 지역이 선발공업지역으로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고 다음으론 매립지선정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강력하게 나가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지난해 10월 울산지역에 한 곳 만들어 놓았고 1월중에 한 군데 만들어지면 좀 나아질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상반기중에 함안쪽 주민들을 강력하게 설득할 계획인데 요즘 NIMBY 현상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청에서는 향후 매립장을 조성할때엔 기술적 완벽성의 추구는 물론,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반대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에요. 처리업체의 시설능력 보완문제역시 작년부터 차수재로 1.5mm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를 설치케하고 별도로 유량조정조를 설치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문종욱 부회장



남학회총무

김효실회장 : 서두에서도 그랬고, 방금 매립지 선정문제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환경보전 토론회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종건총장 : 아까 환경정책방향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했지만, 지난해 11월에 시민, 사회단체 환경관련단체, 언론기관 등을 초청해 「환경보전활동에 있어서의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과 부산, 경남 지역 환경관리대책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참 좋은 반응을 얻었지요.

금년에도 지역환경의 현안문제를 주제로 선정, 「부산·경남지역 환경보전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의하고 싶은 주제나 토론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문종욱부회장 : 환경보전토론회와 함께 부산·경

남지역의 환경정보가 망라된 '부산·경남 환경소식지' 발간에 거는 기대 또한 큼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행정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주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종건총장 : 여러분들께서도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소식지는 부산·경남지역의 환경정보를 종합해 시민과 각종 단체에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환경인식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에의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시위에서 보듯 잘못된 환경정보로 인해 매립장설치가 벽에 부딪히고 있고, 정기적으로 홍보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요.

앞으로 이 소식지는 각종 환경자료의 공개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주민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봅니다.

남학회총무 : 환경보전을 실천하려는 국민의식 함양은 쾌적환경 구현에 필수 조건입니다.

환경보전 토론회 개최나 환경소식지 발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이나 민간환경보호 단체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박종건총장 : 우리 지역의 환경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도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환경 감시활동이나 홍보 및 계도등 지역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때 비로소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청에서는 작년에 확대지정한 천 5백명의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은 물론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참신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ㄹ**